



# 자신감으로 개방의 파고를 넘자

현행 '협상' 시간확보 의미 가장 커, 자유무역 방향 추구 자명한 사실  
지엽적 논란 안타까워, 품질·유통·조직경쟁력 통해 고비 극복해야

■ 정명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무역협상 관련 세미나와 정책토론회 등을 들어보면 농산물의 시장개방이 가져올 농업부문에의 영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좌절하여 포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나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등 세계무역기구(WTO)라는 국제무역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무역 자유화"라는 목표 속에 숨어있는 세계 농업구조 개편의 전략을 간파한다면 지금의 이 시련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게 한다.

농산물의 국제간 거래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이전까지만 해도 무역으로는 취급도 안할 정도로 관심 밖의 것이었다. 그러던 것을 다국적 농기업들이 주도하여 농산물의 국제거래를 세계무역기구인 GATT(현

재는 WTO)로 끌어들이고 UR협상을 통해 무역질서에 편입시킨 것이다. 농업은 타 산업과 다르게 자연의 지배를 크게 받기 때문에 생산의 적지가 형성된다. 이를 이용해 국제 농기업들은 특정 농산물의 생산적지를 점령하고 유통망을 장악하여 국제적인 독과점 체계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미 몇몇의 다국적 농기업들은 특정 농산업의 독과점 체계를 확보했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품목의 종자산업과 생명공학적 육종부문을 투자하고 있어 앞으로는 농산업구조가 육종에서 종자, 생산, 가공, 저장, 유통까지 수직 계열화된 독과점 체계로 구조재편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UR협상과 DDA협상 결과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은 농산물의 생산만이 아니라 국내의 농업생산 구조를 바꾸어 가야하는 구조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원래 무역협정은 어떤 상품의 수출입 과

정에서의 부당한 장벽이나 가격조작 및 관세부과 등을 공평하게 하자는 것임에도 농산물에 관한한은 농산물협상을 넘어서 그 농산물의 생산과정까지도 간섭하는 소위 농업구조조정 협상이 된 것이다. 그것은 UR협상 결과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성이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국내 지원을 금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의 지배를 받고 있는 농산물은 생산적지를 점령하고 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농기업들이 가장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지금의 모든 협상전략 등이 시간을 얻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 이미 세계무역기구 속에 편입된 이상 우리나라도 자유무역의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것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당장의 DDA협상 전략이나 FTA상대국 선정 및 추진전략 등은 단기정책일 뿐 장기정책은 될 수 없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길러 나가는 길 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가 DDA협상이나 FTA를 추진하는 전략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좋은 의견이 많았지만 농어민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는 논의자가 없었다. 이 문제는 정부의 정책보다도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그것은 농민들이 자신감을 잃고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업에 주인인 농민들과 농민단체들도 자신감을 잃고 협상의 잘잘못만 따지며 보상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제 와서 농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자거나 FTA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서 안타까웠다. 우리는 무역으로 나라 경제를 유지해가고 있다. 이미 WTO의 회원국이며 DDA협상에 참여하고 있고 FTA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제는 외국으로부터의 농산물수입과 우리 농산물의 외국수출이 모두 개방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 생각 바꾸면 미래 살아날 수 있어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도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다는 도전의식을 가지고 해외농산물과 경쟁해 보겠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할 때이다. 경쟁력은 규모와 가격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최종선택에는 품질이 더 크게 작용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좋은 먹거리를 소비자 기호에 맞게 가공하고, 포장하여 전달하며, 잊혀지지 않게 하는 마케팅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농민들이 가장 결속력 있게 조직화 되어 있느냐에 따른 조직 경쟁력이다. 협동심이 강한 조직으로 농민들이 똘똘 뭉쳐 생산과 가공, 저장, 유통을 추진한다면 가격도 보다



낮출 수 있고 품질도 보다 높일 수 있으며 유통능력도 크게 신장되어 국제화의 파고를 이겨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의 협동하는 노력, 조직을 위해 양보하는 노력, 장래를 위해 신용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협동규약을 깨는 일이나 계약을 어기고 양심을 팔아버리는 일이 없어야 농민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일본이라는 고급수요시장을 끼고 있는 가장 유리한 나라이다. 이들이 경제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불리하다는 것은 곧 이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가장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의 농산물 생산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생산과정에서의 품질관리나 유통관리는 소비국들의 신임도가 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품목에 따라서는 우리 농산물이 가격경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공격적인 수출농업을 일구어 보자. 협동조직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면 자신감도 가지고 도전할 힘도 생길 것이다. 장기적으로 우리농업을 살리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길은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일구어낼 사람은 바로 우리농민들이며 우리들의 자신감과 도전의식 그리고 협동의식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정부·농협 변해야

지금 우리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

움을 뚫고 우리농업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농정당국 뿐만 아니라 농어민들 그리고 농업관련 단체들까지도 함께 뭉쳐야 한다. 우선 농협이 “강력한 협동조직인 품목조합” 중심으로, 생산·가공·저장·유통 등 경제 사업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농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우리 농업을 살려나갈 품목별 협동조합들의 생산 외에 가공·저장·유통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나 재정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품목별협동조합이 경제사업 위주의 조직으로 재편하여 성공할 수 있으려면 농협의 농산물수집 및 배송체계가 확립되고 농민단체 중심의 농산물주말시장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주말의 연휴를 이용하여 농민들이 만든 농·특산물이나 가공상품들을 소비자에게 선전하고 팔 수 있는 장소와 수단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제 5일 시장기능을 대체할 주말 시장이 필요하게 됐다. 그 다음은 여기에서 인기를 얻은 농산물과 농상품들이 농민생산조합의 파트너가 될 소비조합으로 연계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도시소비조합의 육성이 필요하다. 소비조합이 활성화 되면 먹거리를 직접 신용 있는 생산자조합과 직거래하기를 원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신용 거래는 품질보장이 전제되기 때문에 품질위주의 농업으로 유도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소비조합과 품목조합간의 직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품목조합들이 주말시장에 내어놓는 새로운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등이 소비자와 계약되어 중앙회에

신고만하면 즉시 소비조합으로 배송될 수 있는 물류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 다음 우리농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수출시장개척에도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가깝고 거대한 중국시장에 팔아 먹을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 몇 가지라도 수출대책 특별팀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쌀의 경우도 우리의 품질 좋은 쌀, 기능성 쌀을 대규모농장에서 값싸게 생산하여 중국의 고급수요층을 공격한다면 먹혀들 수도 있다. 이렇게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업품목에 대해 품종개발 및 생산기술전문가와 사후처리 및 가공전문가, 그 품목의 국제수급관계 전문가, 정보전문가 그리고 그 품목조합의 농민을 포함하는 전략팀을 만들어 생산에서 시장개척까지 시도해보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의 품목이 중국이나 일본 등에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우리농업도 살아날 수 있다. 농업의 경쟁력은 가격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품질경쟁력과 유통경쟁력 그리고 이를 적극 주도할 수 있는 조직경쟁력이 더욱 중요하다.

## 농민의식도 바꾸어야

농업의 국제개방 속에서도 우리농업을 살리고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농민들도 지금까지의 농업보다는 새로운 농업과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우선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품질의 고급화를 지향해야 한다. 고품질농업 운동은 정부와 함께 다양한 품종개발, 다양한 농법개발 그리고 다양한 농상품 개발의 목표를 확립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환경농업운동이다. 농약을 많이 쓰지 않는 농업, 그래서 농산물의 품질이 인정되는 우리농업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환경농업직불제, 원산지표시제, 품질인증제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농민들의 신용지키기 운동이다. 농민들이 인증된 품질의 농산물과 그것으로 만든 농상품의 품질과 가격을 소비자와 계약대로, 규정대로, 상호의 믿음대로 계속 공급해주는 신용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들도 생산기술이나 가공기술이 수준에 이르러야 하며 품목조합의 생산능력이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성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자기의 생산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는 그리고 사회의 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가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농업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까다롭기는 하지만 사 먹어 줄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일본의 소비시장을 곁에 두고 있어 농업개방이 꼭 불리하지 않은 않다. 이러한 기회를 앞에 두고 농정의 방향을 세우지 못해 고민하는 정부와 농민단체들의 패배의식도 고쳐져야 할 중요한 과제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농업을 잘만 이끌어 가면 전망은 있다. 도전이 필요하고 그 도전을 위해 함께 일할 지도자가 그리고 이를 따라 줄 후계인력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농약정보**